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 우수'

농진청, 잎 전용 고추 '원기2호' 개발 성공 원기1호보다 혈당 상승 억제 활성 3배 높아 일반 고춧잎처럼 나물·전 등 조리 가능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필요로 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당뇨병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잎 전용 고추 품종을 개발하고 채소 섭취를 통한 혈당 관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뇨병 치료제 중 하나인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제(AGI)'는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데이스를 막아 혈당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당뇨병, 비만, 과당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고춧잎에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 850여 점의 고추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을 분석하고 2008년 기준 고추 품종보다 잎에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이 약 4배 높은 '원기1호'를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조직 배양을 통해 '원기1호'보다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이 약 3배 높은 '원기2호'를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

분석 결과, '원기2호'의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은 74.8%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뇨병 치료 약 '아카보스(80.2%)' 못지않게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원기2호'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항당뇨·항비만 유효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원기2호'의 잎 추출물을 당뇨병을 유발한 동물(쥐)에 8주간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 복강 내 당부하, 당화혈색소, 혈장 인슐린 농도, 혈중 지질 등 11개 지표를 당뇨병을 유발한 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했다.

'원기2호'의 잎은 일반 고춧잎처럼 나물이나, 장아찌, 전 등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열매도 일반 고춧잎처럼 섭취할 수 있고 재배 방법도 비슷하다.

'원기2호'는 현재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 후 보호 등록을 위한 재배심사를 진행 중이며 보호 등록 전 이른 시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종묘회사 등에 통상 실사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 결과는 지난해 국제 학술지 '메타볼라이트(metabolites)'에 실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매 생산을 목적으로

로 고추를 재배하며, 잎이나 줄기는 재배가 끝나면 버리는 부산물로 여겨졌다. 이번 연구는 고춧잎에 기능 성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반 품종보다 기능성이 높은 품종을 만듦으로써, 고춧잎의 식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원기2호' 고춧잎 생산 기술과 잎 전용 품종에 대한 홍보, 제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 방안 등 현장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이번에 소개한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는 흔히 부산물로 취급되는 고춧잎에 식용 고추 상성을 억제하는 기능 성분이 풍부함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기능 성분을 함유한 채소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우를 최대 33% 할인 가격에

농협 라이브리, 물가안정 프로젝트 할인행사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 경제저장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브리(www.nhlyvly.com)에서 소비자 물가안정 및 축산물 경영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프로젝트 할인행사를 오는 8월 12일까지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주차별 다양한 할인 기획안이 진행되며 한우, 한돈, 한우곱창, 대창 등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매주 2회 진행되는 라이브커머

스에서는 방송시간 동안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상품별 할인 품목 및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농협 라이브리를 통해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무더위와 장마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낙농인들, 원유값 불공정 투쟁 나서

최근 낙농인들은 치솟는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차례의 사료가격은 올라갔지만 원유가격은 수차례 저지러 결을 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에 낙농가들은 수년간 원유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우유 등 유제품들은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는 현실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불균형이 아닌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농식품부)의 낙농업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생산자가 불참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편, 연동제를 폐지하고 원유가격은 정관개정을 통해 개편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가 의견을 묵살하는 낙농대책의 일방적인 도입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산낙농농협(조합장 이안기)측은 "현재 사료가격의 폭등상황에서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유업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낙농가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주질 않음시에는 낙농가들은 도산위기와 유생산기반 붕괴, 축산업 폐업 등 큰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LX공사는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착수보고회에서 앞으로 3년 간 약 140억원을 투입해 공간정보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340여종의 공공·민간 공간정보 데이터를 생산·개발·표준·유통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호탄'

LX, 과기부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분야 주관기관 선정

공공과 민간이 구축한 공간정보 데이터의 생산·개발·표준·유통이 본격화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선정하는 '2022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분야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LX공사는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앞으로 3년 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공간정보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340여종의 공공·민간 공간정보 데이터를 생산·개발·표준·유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공간정보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고품질 데이터

가 유통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주)공간정보기술·에이모·호정솔루션 등 선정된 민간기업 10곳은 앞으로 3년 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생산·유통·확산한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 전문기업 에이모는 자율주행차 원천 데이터를 개발한다. 그동안 '에이모'는 자체 보유 데이터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하지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10여종의 데이터를 개발, 자율주행 레벨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간 등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공간정보기술은 점차 보도블록·화단보호·음향신호·주행유도선 등 데이터 30여종을 개발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안주 간중초 학생 등 초청 미래인재 WeRO 프로그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제)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명우)은 20일 은행 본점에서 안주 간중초등학교와 진안 동향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미래인재 WeRO(위로) We grow up together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미래인재 WeRO(위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정서적 위로와 교감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1부에서는 인간관계 증진을 통한 교육 개선, "나를 찾아가는 레이블링 게임", "음악 감상 테라피를 통한 놀이" 등 예술 및 리더십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국내 최초 디지털 금융체험관인 JB 플랫폼에서 디지털 금융 체험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에비유니콘 기업 성장 돕는다

전북중기청, 올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브랜드로, 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경쟁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에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성장 잠재력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에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60개사가 선정됐으며, 그 중 전북지역은 수소연료전지 파워텍 전문벤처기업 테라리스크(주)가 지역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그간 중기부는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

정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91.4% ↑) 증가하고 매출은 2.5배(149.6% ↑)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20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 중 60개 기업은 선정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6,767억 원을 추가로 유치했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하반기 국민심사단과 함께 뽑는 아기유니콘이 에비유니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에 이어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유니콘 누리집(www.k-unicon.or.kr) 등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소고기 수입통관 절차 전반 점검

농식품부, 현장 애로사항 수렴·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에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부과를 소비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수입업체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안 발표(7월 8일) 직후인 7월 11일에 정황근 농식품 차관보와 한우협회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가들의 생산·출하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진안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실시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혜석)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목축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관할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자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 소재 임야 및 주민등록상주소지의 경우 진안군산림조합에서 등록을 대행하고 있어 관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지급신청은 해마다 6월 예정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혜석 산림조합장은 "올해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임업인들의 관심 이높아지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방문하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산림조합(063-433-2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민기자



뚝딱365, 전주교 찾아 메이커스페이스 견학 등 운영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뚝딱365'는 전주교등학교 공학동아리 F.O.S를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견학 및 탄소성형공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뚝딱365에서는 탄소소재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에게 △탄소소재의 특성 및 종류 △탄소성형 공법의 이해 △탄소 진공성형 공정 실습 등의 프로그램 과정을 제공했다.

참여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실습을 통하여 진로 모색의 기회를 갖게 되고, 탄소 소재에 대해 들어보지만 하고 잘 몰랐는데 탄소가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고는지를 이번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